

#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인문사회계열]

수험번호		<b>■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b> 1. 수험번호, 성명 등 자기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 드러내지 말 것 2. 답안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 포함 3. 각 문제별로 정해진 분량의 글을 쓰고, 연습은 문제지 및 표지를 이용할 것 4. 필기구는 흑색 또는 청색 볼펜을 사용할 것 (연필, 샤프, 지우개 사용 가능/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성명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개구리가 어느 날 동해의 자라에게 말하였소. “나는 참 즐겁소! 나는 우물가 위로 뛰어올라 놀기도 하고, 우물 안에 깨진 벽 틈으로 들어가 쉬기도 하오. 물로 들어가서는 양편 겨드랑이를 수면에 대고 턱을 물 위에 받치며, 진흙을 발로 차면 발은 등까지밖에는 그 속에 빠지지 않소. 장구벌레나 게나 올챙이를 둘러보아도 나와 같은 자가 없소. 거기다가 한 우물을 내 집으로 삼아 편안히 쉬는 즐거움이란 또한 최고의 것이고, 당신도 때때로 들어와 보는 게 어떨겠소?”

이번에는 동해의 자라가 개구리에게 바다 이야기를 하였소. “천 리의 먼 거리로도 바다의 크기를 표현하기엔 불충분하며, 천 길의 높이로도 바다의 깊이를 형용하기엔 부족하오. 우임금 때 십 년 동안에 아홉 번이나 장마가 졌지만 바다의 물은 더 불어나지 않았고, 탕임금 적에는 팔 년 동안에 일곱 번이나 가뭄이 들었지만 바다의 물은 더 줄어들지 않았소. 좁은 우물 안에만 머물러서야 넓은 세상의 도리를 알 수 있겠소. 거기에서 나와 모든 강물이 흘러드는 바다를 보길 바라오.” - 장자, 추수(秋水)

<나>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곧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 헤세, 데미안

정적인 성과나 결과보다는 성장, 개선, 진보의 과정이 의미 있는 것이다. 목적은 더 이상 도달해야 할 종착점이나 한계가 아니다. 그것은 현존하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과정이다. 최종적인 목표로서의 완성이 아니라, 완성시키고, 성숙해지고, 다듬어가는 부단한 과정이 삶에서의 목표이다. 건강, 부, 학식과 마찬가지로 정직, 근면, 정의 또한 획득해야 할 고정된 목표를 표현하는 선이 아니다. 유일한 도덕적 ‘목적’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장 자체이다. - 듀이, 철학의 재구성

<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 없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할 고민 없다.  
 이번 건 네가 절대로 믿고 싶지가 않을 거다.  
 그것만은 사실이 아니길 엄청 바랄 거다.  
 하지만 나는 사는 게 재밌다. 하루하루 즐거움다.  
 나는 사는 게 재밌다. 매일매일 신난다.  
 - 장기하, 별일 없이 산다

참된 쾌락과 참된 행복은 영혼의 고요한 평정에 있다. 두려움, 욕망, 고통 등과 같은 영혼의 소용돌이를 잠재울 때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함이 나타난다. 소박한 식사와 물만으로도 만족하니 나의 몸과 마음은 상쾌하기 그지없다. 가장 큰 부를 소유하고, 또 군중들에게서 명예와 존경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동요는 결코 끝나지 않으며 진정한 기쁨도 생기지 않는다.  
 - 에피쿠로스, 자연에 관하여/쾌락

<라> 시 나무랭이 같은 건 다시 쓰지 않으리라! 그렇게 끝이 났다. 내 청춘은 거기서 끝나고 말았다. 그래서 시니 문학이니 하는 것하고는 멀어도 한참 먼, 사돈네 팔촌의 발뒤꿈치 정도의 인연도 없을 것 같은 학과를 택해 입학원서를 썼다. ‘내가 지금 문학 같은 것 해서 뭐하겠냐. 밥벌이 잘되는 학과나 가서 밥이나 굶지 않고 살면 그만이지.’

대학 4년을 보내고 군대까지 다녀온 뒤 들어간 직장에서 내가 맡게 된 일은 돈을 다루는 일이었다. 날마다 돈을 만지작거리는 일이 내 업무였다. 그런 어느 날, 무심코 돈다발을 정리하다 보니 만 원짜리를 한 손에 집을 때마다 정확하게 백만 원씩 손에 집히는 걸 알았다. 돈다발을 손에 쥐고 세기 위해 펼치면 금세 백만 원이 헤아려지긴 했지만, 무심코 돈을 집었는데도 백만 원씩 손에 집히는 건 끔찍한 일이었다. 나는 돈 세는 기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

‘내가 돈 세는 기계가 되고 말았다니, 말도 안돼! 나는 기계가 아니야! 기계가 아니라고!’

나는 직장에 휴가를 낸 뒤 곧바로 여행을 떠났다. ....

뒷동산에 오른 나는 어렸을 때 늘 앉던 자리에 다시 앉아 바다에 붉은 원색의 물감을 풀어 놓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어린 소년의 가슴을 달아오르게 하기도 하고 서늘하게 만들기도 하던 노을이 거기 있었다. 그동안 잊고 살던 것들이었다. 오로지 밥벌이만 최고로 알고 자신을 밥벌이 기계로만 쓰느라 애써 잊고 있던 것들이었다. ....

나도 모르게 글을 쓰기 시작했다. 대단한 내용을 담은 글은 아니었으나 글을 쓰다 보니 내 마음이 가라앉고 위안이 되었다.  
 ....

나는 더욱 글에 매달렸다. 때로는 내가 고등학교 때의 선생님이 되어 보기도 하고, 직장의 상사가 되어 보기도 했다. 글이란 게 묘해서 화자가 누가 되었든 결국 쓰는 사람 이야기였다. 나는 그렇게 다시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다. 고등학교 때는 공부 기계가 되기를 거부하다 보니 시를 쓰게 되었고,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엔 돈 세는 기계가 되기를 거부하다 보니 글을 쓰게 되었다.

휴가가 끝난 뒤에도 나는 직장에 다시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글에만 매달렸다. ....

소설 쓰는 걸 업으로 삼은 뒤에도 옛날 생각은 더욱 하지 않았다. 다시 글을 쓰게 되면서 나는 지난 세월 속의 나를 인정할 수가 없었다. 그저 새로 태어나야 하는 나에게만 관심을 두었다.  
 - 박상률,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문제 1-1】**  
 <가>의 개구리와 자라의 우화를 활용하여 <나>와 <다>의 대비되는 삶의 관점을 설명하시오. (200자 내외) **[40점]**

**【문제 1-2】**  
 【문제 1-1】의 관점 중 하나를 택하여 <라>의 주인공이 ‘다시 글을 쓰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 평가하시오. (300자 내외) **[60점]**

#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인문사회계열]

수험번호		<b>■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b> 1. 수험번호, 성명 등 자기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 드러내지 말 것 2. 답안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 포함 3. 각 문제별로 정해진 분량의 글을 쓰고, 연습은 문제지 및 표지를 이용할 것 4. 필기구는 흑색 또는 청색 볼펜을 사용할 것 (연필, 샤프, 지우개 사용 가능/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성명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체가 개인의 집합에 불과하며 개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므로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정의로운 국가는 가치와 재화를 강제적으로 분배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상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국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바람직한 국가는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에 한정하는 최소 국가라야 한다. 로크(John Locke)가 자연 상태에서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의 자연권을 갖는다고 보았듯이, 노직(Robert Nozick)도 자연 상태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국가만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나>** 시민들이 도덕적으로 건전하지 않으면 시민적 화합은 달성될 수 없다. 자기 이익에만 관심을 가진 부정의하고 탐욕적인 사람들은 공동선이나 타인과의 협력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공적 헌신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덕스러운 시민들의 공동체에서는 공동체적 유대가 강할수록 사회 정의의 요구도 증대되고 그와 더불어 부정의의 기준도 엄격해진다. 진정한 우정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시민들은 공동체적 유대가 강하다고 생각해서 집단적 이기주의로 전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정한 우정의 덕은 스스로의 부도덕함을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친구의 부도덕함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 기업 간의 담합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우유, △△유업 등 12개 우유 업체는 2008년 9~10월경 우유 업체 모임인 ‘☆☆회’를 통하여 제품별 가격 인상안 상호 교환 및 인상 시기, 인상을 등을 협의하고, 같은 해 9월부터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였다. 실제로 2008년 8월 말경 ○○우유가 1리터 제품의 가격을 1,950원에서 2,230원으로 올렸으며, 비슷한 시기에 △△유업도 1리터 제품의 가격을 1,850원에서 2,220원으로 인상하였다.

**<라>**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 운명 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며, 자기 운명 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의 자기 결정권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성의 자기 결정권은 혼인과 가족생활의 유지·보장 등을 위하여 성의 자기 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결은 성의 자기 결정권이 국가적·사회적 공동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 윤리,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내재적 한계가 있으며, 어느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법과 도덕의 경계, 사생활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한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다.

**<마>** 서로(Lester Thurow)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적절한 권력의 분배에 대하여 매우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 하나는 ‘1인 1표’라는 정치권력의 완전한 배분이 옳다고 믿는 반면, 다른 하나는 경제적 비적격자를 몰아내어 경제적으로 멸종시키는 것이 경제적 적격자의 의무라고 믿는다. ‘적자생존’과 (구매력상의) 불평등이 자본주의적 효율성의 모 든 것이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어울리기 어려운 정치체제(민주주의)와 경제체제(자본주의)가 어떻게 잘 결합하고 상호 작용을 하면서 19세기 이후 크게 번영을 이루어 왔을까? 서로는 민주주의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정부가 시장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더 평등한 소득 분배를 이루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놓는다.

“역사적으로 시장 경제들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제적 평등을 창출해 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은 평등을 촉진하고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고안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져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진\* 소득세이다. 누진 소득세는 20세기 초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해 왔다.

\* 가격, 수량 따위가 더하여 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에 대한 비율이 점점 높아짐

**【문제 2】**  
 제시문 <나>, <다>, <라>, <마>를 활용하여 제시문 <가>를 비판하시오. (500자 내외) [100점]